



미 증시, 파월의장 발언 경계심리, 빅테크 약세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26 일(월) 미국 증시는 주말 간 발생한 러시아 무장반란 여파는 제한적인 가운데, 중앙은행들의 잇따른 긴축 및 파월의장 발언을 앞둔 경계심리, 독일 경제지표 부진, 빅테크 기업 투자의견 하향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산되며 하락. (다우 -0.04%, S&P500 -0.45%, 나스닥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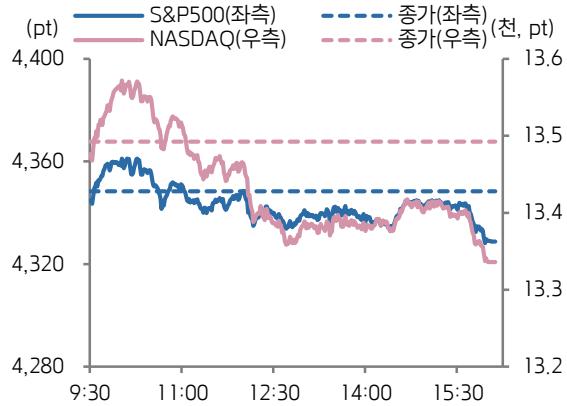
존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안정적인 물가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 구체적인 통화정책 전망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격 안정은 선택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파월의장의 발언에 대한 경계심리를 높임. 파월 의장은 28 일에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ECB 포럼에 참석,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와 정책 토론에 나설 예정.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이 모스크바 바로 앞에서 반란을 중단한 이후 유혈사태를 피했지만 푸틴과 프리고진의 불화는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 제기. 벨라루스 정부 종재 하에 프리고진은 반란을 중단, 러시아 정부는 프리고진을 비롯한 바그너그룹 소속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 그러나 NYT 는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사건은 여전히 취하지 않은 상태”로 망명 중인 프리고진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공급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되며 국제유가가 장중 1% 급등하며 70 달러대 회복하기도 했으나 영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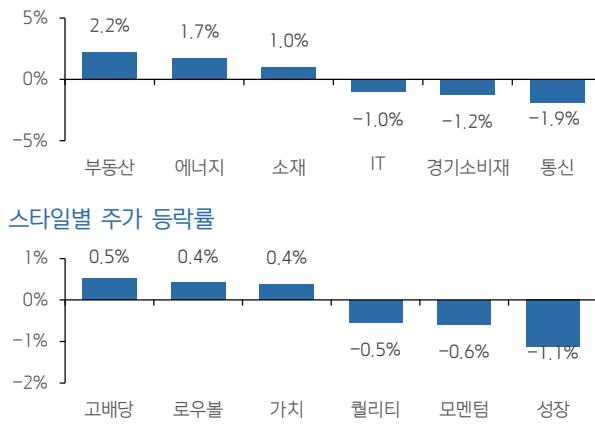
미국 6월 델러스연은 제조업 활동지수는 -23.2(예상 -21.8, 전월 -29.1)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독일 6월 IFO 기업환경지수는 88.5(예상 90.7, 전월 91.5) 기록하며 부진. 현재경기에 대한 평가지수 93.7(예상 93.5, 전월 94.8)로 개선 되었으나 미래 경제평가지수는 83.6(예상 88.1, 전월 88.3)으로 큰 폭 하락.

업종별로 부동산(+2.2%), 에너지(+1.7%), 소재(+1%) 업종은 강세, 통신(-1.9%), 경기소비재(-1.2%), IT(-1%) 업종은 약세. 테슬라(-6.06%)는 지난주 모건스탠리에 이어 골드만삭스도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진이 압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약세. 알파벳(-3.27%) 역시 UBS 가 생성형 AI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마진 압박, 기술 수익화 난관 등이 위협 요소가 될 것임을 근거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82.20	+0.47%	USD/KRW	1,305.70	+0.1%
코스피 200	340.38	+0.57%	달러 지수	102.76	-0.14%
코스닥	879.50	+0.53%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341.49	+0.43%	USD/CNH	7.24	+0.01%
S&P500	4,328.82	-0.45%	USD/JPY	143.49	-0.01%
NASDAQ	13,335.78	-1.16%	채권시장		
다우	33,714.71	-0.04%	국고채 3년	3.570	-4.2bp
VIX	14.25	+6.03%	국고채 10년	3.607	-6.3bp
러셀 2000	1,823.26	+0.09%	미국 국채 2년	4.744	+0.3bp
필라. 반도체	3,515.77	+0.26%	미국 국채 10년	3.721	-1.4bp
다우 운송	14,891.43	+1.39%	미국 국채 30년	3.814	+0.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80.57	+0.21%	WTI	69.37	+0.3%
MSCI 전세계 지수	668.04	-0.26%	브렌트유	74.39	+0.73%
MSCI DM 지수	2,894.93	-0.26%	금	1933.8	+0.22%
MSCI EM 지수	989.27	-0.27%	은	22.83	+2.11%
MSCI 한국 ETF	63.90	+0.93%	구리	378.4	-0.5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3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보합.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3.6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주중반 이후 예정된 파월의장 발언, PCE 물가 경계심리 조기 유입 여부
2. 엔비디아 등 미국 AI 주들의 동반 약세가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3. 테슬라 주가 급락이 국내 2차전지주들의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SK 하이닉스 등 국내외 AI 관련 반도체주들은 5 월 이후 랠리를 펼쳤으나 6 월 중순을 기점으로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 모습(27 일 종가 기준, 6 월 장중 고점 대비 주가변화, 엔비디아 -7.6%, 마이크로소프트 -6.5%, 알파벳 -8.3%, SK 하이닉스 -6.3%). 이 같은 주가 조정은 AI 주들이 코스피, 나스닥 등 전반적인 벤치마크 지수들의 랠리를 견인했던 핵심 주체였던 상황 속에서, 이들 소수의 종목만 주가 모멘텀이 붙었다는 점이 일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AI 에 버블이 형성됐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일례로 6 월 13 일 발표된 BofA 의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 향후 시장의 가장 큰 꼬리위험(발생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한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인플레 및 긴축(응답률 36%), 은행 신용경색 및 침체(22%), 지정학적불안(17%), 신용위기(13%) 등 기존에 지목됐던 요인들 이외에도, AI 버블(9%)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

하지만 버블은 사후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AI 버블이 진행 중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 BofA 의 서베이에서도 AI 산업이 향후 2 년동안 아무런 것도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펀드매니저들(응답률 29%)이 있는 반면,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40%), 이익 증가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것(19%)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대다수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결국 주가 상으로 쏠림현상이 누적된 측면이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수시로 차익실현 압력에 노출될 수 있음. 그럼에도 이들 산업의 성장 스토리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중간중간 발생하는 주가 변동성 국면을 비중확대 기회로 삼아보는 전략도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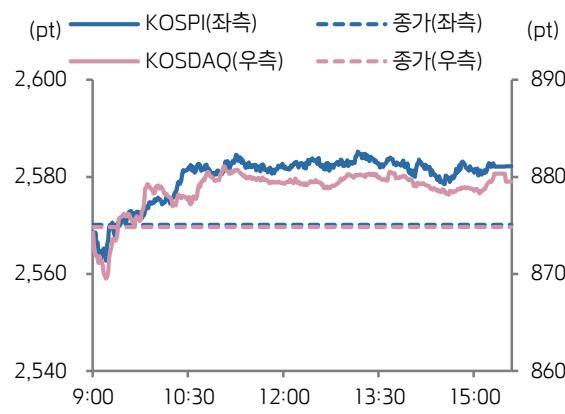
유사한 맥락에서 현재 AI 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중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발언, 5 월 미국 PCE 물가 등 주요 맥크로 이벤트가 전반적인 증시의 추가적인 조정을 유발할 가능성 상존. 다만, 연준 긴축과 관련된 맥크로 이벤트들은 데이터 후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시장도 이미 1 회 추가 인상을 주가에 반영해왔음을 감안 했을 때,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의 형태는 기간 조정으로 상정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타당.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의 긴축 경계, 침체 우려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5%, 코스닥 +0.5%).

금일에는 주 중순 이후 주요 맥크로 이벤트(파월 의장 발언 등)를 앞둔 관망심리 속 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약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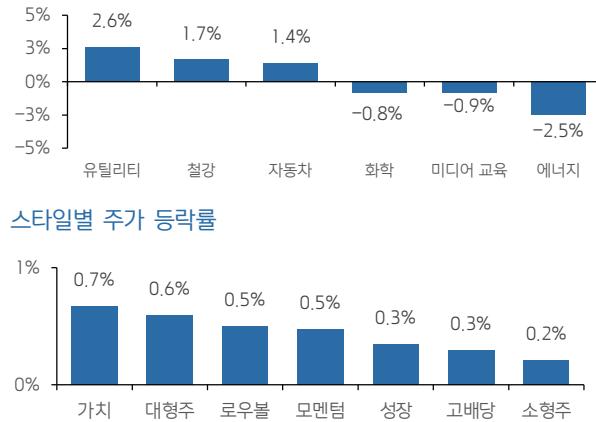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엔비디아(-3.7%), 마이크로소프트(-1.9%) 등 AI 관련주들이 차익실현 물량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테슬라(-6.1%)가 골드만삭스에서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마진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한 여파로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은 국내 2차전지주들의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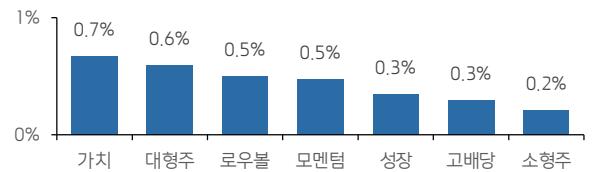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게 됩니다.	